

산비탈에서 ‘禪의 황금시대’ 를 가열하다



3 선림원지, 절반으로도 넘치는 축복

“산은 험하고 계곡은 맑아 수려한데, 인적 드문 산촌마을엔 스산한 정적이 감돈다. 비포장도로 흩먼지 날리는 길은 멀고밭기만 하며, 가파른 비탈을 넘어가는 버스의 엔진소리마저 숨이 차는데 거기엔 목어갈 여관도 없다.”

선림원지(禪林院址) 강원도 양양군 서면 황이리를 답사한 유홍준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제1권(1993년 초판 발행)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세월은 그냥 흐르는 것이 아니거든요. 인간 세상에 있어 시간의 흐름은 문물의 발달을 뜻하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선림원지로 이르는 길은 ‘하늘 아래 끝동네’로 통하던 산간벽지였지만 지금은 그리 어렵지 않게 찾아갈 수

(遺物)의 공간일 것입니다.

쌓인 눈의 두께가 만만치 않아 장화로 갈아 신고 절터에 오릅니다. 건장한 몸으로 반겨주는 3층 석탑에 허리를 굽혀 3배를 올린 뒤 바쁜 걸음으로 하반신만 남은 부도를 향합니다. 멀리서 보면, 키가 낮은 사각의 첩제 보호난간 안에 돌로 빚은 장구를 새워둔 것 같은 형상. 바로 홍각(弘覺) 생몰연대 미상(선사의 부도입니다. 원래 절터에서 뒷산으로 50m 쯤 올라간 곳이 제자리지만, 여기저기 흩어진 부재들을 모아 1965년 11월에 현재의 자리에 복원해 둔 것이라 합니다.

높이 1.2m, 반만 남은 부도를 망연(茫然)하게 바라봅니다. 상반신을 잃어버린 안타까움을 되새김질하다가 눈의 초점을 모아 봅니다. 사각의 지대석 위에 팔각 축면석이 단단하게 얹혀 있습니다. 축면석의 각 면에는 각기 다른 모양의 사자상이 새겨져 있고 그 위에 여덟 개의 연꽃잎을 두른 연화대석이 8각의 궤대를 받치고 있습니다. 비교적 높아 보이는 궤대

선종 초기 스님들 수행지도 하던 도량 추정

해인사 창건한 순응 스님 창건... 홍각 선사 부도 기단석만 남아

산사태로 매몰된 후 한 번도 중창된 적 없어

있습니다. 길(56번국도)이 잘 포장돼 있고 선림원지가 위치한 계곡, 그러니까 미천(米川)골 안쪽의 자연 휴양림은 제법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랑에는 내비게이션이 있어 핸들만 잘 잡고 안내 멘트를 따라가면 어느 유적지나 쉽게 닿을 수 있는 시절, 이 얼마나 편한 세상입니까?

짧은 겨울 해를 아끼며 옛 절터를 향해 달려가는 동안 저마다 고상한 이념표를 달고 방금 화장을 마친 것 같은 얼굴을 자랑하는 편선들이 자주 보입니다. 그러나 “거기엔 목어갈 여관도 없다”던 막막한 탄식은 이제 옛날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오후 3시쯤에 도착한 선림원지는 이미 산그늘에 묻혀 있습니다. 계곡의 양 옆을 버티고 선 산자락이 웅장한 만큼 고도가 낮은 겨울 해는 빨리 넘어갑니다. 얼음이 두껍게 덮인 길, 운전대를 힘껏 잡고 속도를 최대한 줄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럴 땐 걸어가야 하는데...’ 생각은 그렇게 하지만 산그늘에 묻힌 계곡이 웬지 마음을 조금하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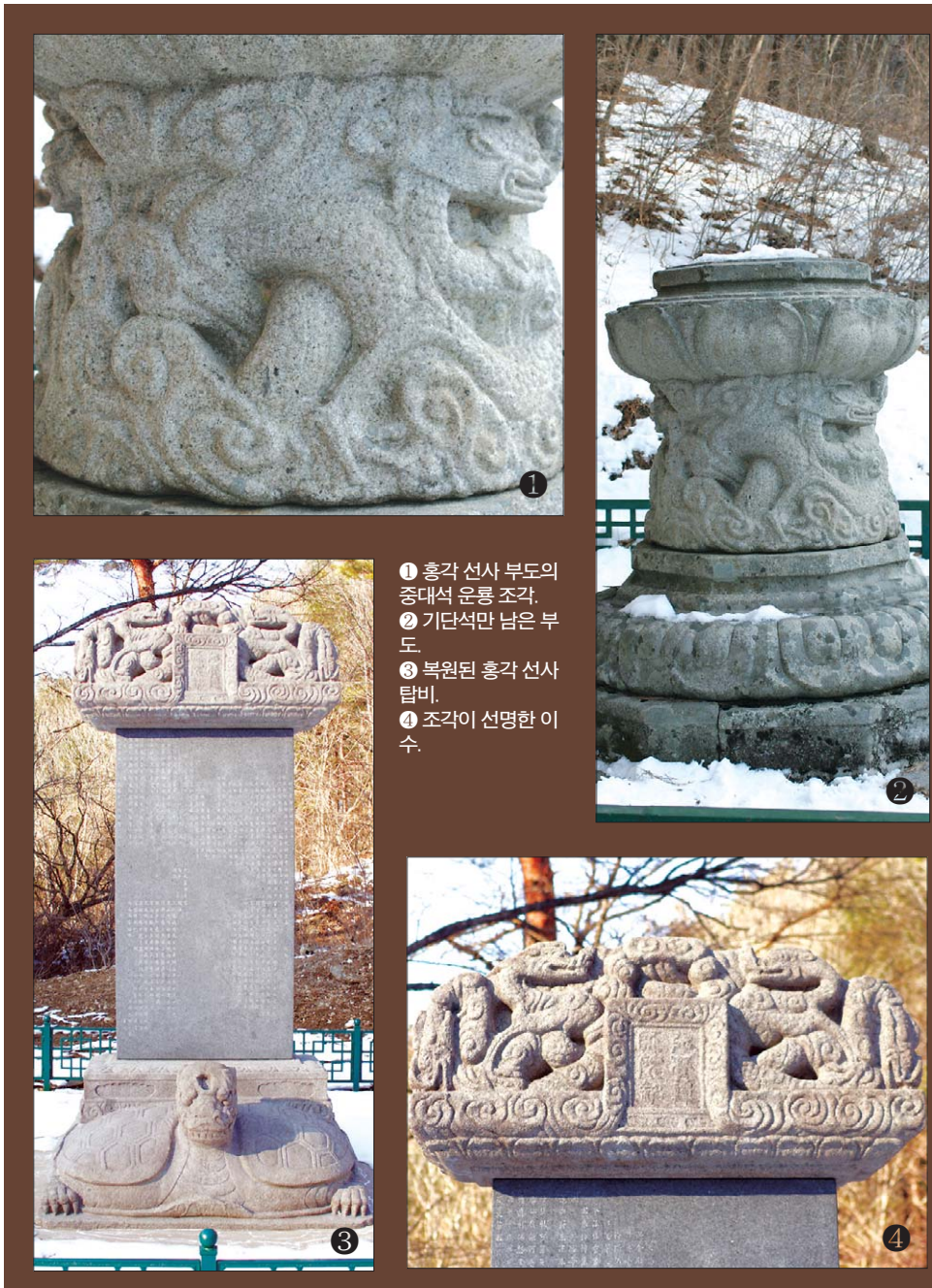
선림원지는 폭이 넓지 않고 깊숙하게 계곡을 따라 누어있습니다. 미리 알고 가지 않으면, 혹은 길 위로 난 계단을 올라 풍채 좋은 남정네처럼 서 있는 삼층 석탑을 만나지 않는다면 그저 그런 화전(火田)자리로 생각할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이불처럼 눈이 덮여 있는 옛 절터는 황량하기 그지없습니다. 맞은편 민박을 겸하는 농가가 없다면 더 없이 쓸쓸한 유물

위에 구름을 헤치고 노니는 세 마리의 용이 아주 현란하게 조각된 중대석이 있습니다. 부도의 역사상 중대석에 처음으로 나타난다는 구름과 용의 조각을 바라보는 동안 숨이 막혀 옵니다.

석공이 오늘 아침에 마지막 망치를 내려놓은 듯 선명한 구름과 생동하는 용들이 ‘반만 남은 이 부도는 이미 형상을 떠나 있노라’ 하고 ‘무설설(無說說)’의 법문을 들려주는 듯합니다. 이토록 정교하고 생생한 중대석의 조각이라면 그 위의 탑신과 육개석 그리고 상륜부는 또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유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후손은 선대의 스승들에게 한없이 큰 죄를 지었고, 후대의 자손들에게도 고개 들지 못할 민망한 죄인입니다.

원적에 든 선사의 사리 한 줌을 안장한 부도의 아름다움이 이렇게 사람의 숨통을 막을 지경이라면 거기에겐 분명, 땅을 덮고 남으며 하늘을 가리고도 모자람이 있을 만치 놀라운 가르침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입을 열어 말하되 아무도 듣지 못하고, 입을 닫고 있어도 첩첩 넘쳐 나는 진공묘유(眞空妙有), 그 큰 울림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로 살고 있음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이렇게 장엄한 통일신라와 고려 초기의 부도들이 화려함의 극치였다면 후대로 내려갈수록 모양이 단순해져 장엄함을 잃게 됩니다. 한 시대의 불교 위상이 부도로도 표현되는 것이고 보면, 오늘날의 부도들도 오늘날의 불교를 담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1 홍각 선사 부도의 중대석 윗쪽 조각, 2 기단석만 남은 부도, 3 복원된 홍각 선사 탑바, 4 조각이 선명한 이수.

1200년 전에 살았던 홍각 선사의 부도가 절반의 몸으로도 천지를 뒤흔드는 법문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봄에 오면 좀 다를까? 그 아득한 폐허의 공간에서 문득 봄 풍경을 그려봅니다. 숨구멍 열리는 땅을 비집고 풀잎들이 고개를 내밀어 푸른 용단을 펼쳐놓고 우짖는 새소리가 천상을 장엄하는 봄날이라면, 천년 넘게 있어졌던 절터에서도 생명의 활기를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겨울날의 오후 선림원지에 서 있자니 나그네는 별거승이가 된 느낌입니다.

선림원(禪林院)은 그 이름에 그 존재의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선 수행의 구도자들이 저자로 향한 발

길을 거두고 외진 도량에 모여 ‘견성성불(見性成佛)’의 새벽별을 보고자 오롯이 수행에만 몰두하던 곳이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겁니다. 이 도량은 수선(修禪)을 지표로 한 운수(雲水)들이 머물던 곳이었다 겁니다. 그러한 짐작은 1985년부터 1년여 걸친 발굴 작업에 의해 사실로 입증되었습니다. 동국대학교 발굴조사단의 보고와 광복직후 이 절터에서 출토된 신라 범종의 명문, 역시 이 절터에 흩어져 있던 홍각(弘覺)선사 비편(碑片) 등을 종합해 보면 선림원이 어떤 도량이었는지 윤곽을 그릴 수 있습니다.

선림원은 해인사를 창건한 순응(順應) 스님이 804년에 창건했습니다. 화엄종 계열의 순응 스님이지만, 그가 지은 선림원은 선종의 도량으로 변화했고 그 중심에 홍각 선사가 있었습니다. 선림원은 통일

신라의 화엄종에서 지은 절이 구산선문이 꿈틀대던 시절인연을 따라 선종 사찰로 변화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절의 이름이 ‘사(寺)’가 아닌 ‘원(院)’인 것은 화엄종의 스님들이 선종으로 이적하면서 필요하게 된 선을 중점적으로 닦는 ‘수련원’의 역할을 했음을 추론케 합니다. 이 산비탈에서 ‘선의 황금시대’가 가열(加熱)되고 있었던 겁니다.

홍각 선사는 구체적인 행장이 전해지지 않지만, 선림원지에 있던 비편 등을 통해 ‘일찍부터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불경을 깊이 연구했으며 수행의 깊이를 더해갔던 봉림사문(鳳林寺門)의 선승’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찾아와 밥을 묻는 이가 많았던 말년에 선림원에 머물다 886년에 입적했고 선림원에는 선사의 부도와 비의 귀부와 이수(보물 제445호)가 남아 있습니다. 깨어져 빈 터에 평굴된 비편들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150여 글자가 판독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에 새긴 글자들이 왕희지의 글자를 집자한 것이라 ‘높으신 분’들의 탁본 행렬이 꾸준했다고 하는데 그때마다 노역에 시달려야 했던 민초들이 탑을 훼손했다고 합니다. 빗물에 들인 옛 사람의 정성이 후대에는 민폐가 되었다니 세상인심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 선림원지에는 판독 가능한 글자들만 새긴 채 비신을 복원해 격을 갖추어 놓았습니다.

쌀 씻은 물이 냇물을 허영게 했다(米川)던 선림원지에는 진전사지의 삼층석탑과 닮은 삼층석탑(보물 제444호)과 홍각 선사의 부도(보물 제447호), 기상이 넘치는 귀부와 용 조각이 산뜻한 이수(보물 제446호), 귀꽃이 아름다운 석등(보물 제445호), 금당터, 조사당터 등이 천년 넘는 세월의 구멍을 메우고 있습니다.

절은 창건 후 오래 견디지 못한 채 어느 해에 산사태에 매몰돼 폐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세기 이후의 유물은 한 점도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석조물들의 상태가 그토록 선명한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광복직후에 이 터에서 출토됐던 신라 범종의 경우, 마땅히 보관할 곳이 없어 평창 월정사로 옮겨다가 한국전쟁 당시 월정사가 불에 탈 때 함께 녹아 버리고 그 유해의 일부가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유홍준은 “차라리 발견되지 않고 땅속에 묻혀 있었다면 이 시대에 얼마나 큰 대접을 받았을까”하고 안타까움을 토로했습니다.

눈 덮인 땅에 풀이 돋고 새 우짖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니 나도 언젠가 풀로 돈아 눈비를 맞고 눈비로 내려 풀뿌리에 스며들 것을

산그늘이 두께를 더해 가는 선림원지를 뒤로하고 돌아서니 문득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홍각 선사가 게 바칩니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